공공기관 이면지 마구 버려 시민들 개인정보 줄줄 샌다

보건소·경찰서 쓰레기 통해 암환자 인적사항 등 유출

광주지역 일부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이면지와 메모지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이들 기관이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면지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서나 구청 등의 민원실에서도 인적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가 버려진 채 발견돼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유출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은 물론, 파쇄기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 보건소는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명단 등이 담긴 서류를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 상자 수급대장' 용지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 대장 뒷면엔 소아암 백혈병환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재산액·가구 월 소득액·가족 수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이름 등이 적힌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명단은 물론, 문서번호가 기록된 각종 공문도 이면지로 사용 중이다. 이 대장은 민원인이 수시로 오가는 보건소 3층 옥상 계단에 비치돼 정보 유출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일선 경찰서와 구청 민원실 등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과속위반 스티커·음주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보험 청약서 등이 곳곳에 굴러다니는 형편이다.

지난 22일 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엔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음주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 보고서엔 음주운전자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측정농도·음주 경위·적발일시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또 같은날 광주시 동구청의 주차장에도 금융기관명·계좌번호·이름 등이 적힌 메모지 뭉치가 버려져 있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정모(33)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인터넷 인증까지 자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에서 흘린 정보가 자칫 범죄에라도 악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병력(病歷)과 재산현황이 적힌 문건이 공공기관의 옥상 계단에서 발견됐다니 믿을 수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보 인권' 침해 사례로,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할 경우 곧바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보건소 3층 옥상 계단에 개인정보가 적힌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 상자 수급 대장'이 방치돼 있다. 왼쪽 위는 경찰서에서 발견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음엔 우승이다" WBC 결승전이 벌어진 24일, 임창용 선수의 모교인 광주 진흥고는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공 하나 하나에 환호와 탄식을 거듭하던 학생들은 준우승에 그친 대표팀에게 "다음에는 우승"이라며 격려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잘 싸웠다" 아낌없는 박수

WBC 한·일 결승전 시민들 열띤 응원

"아쉽지만 잘 싸웠다. 태극전사, 그대들 있어 3월 한 달이 즐거웠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 결승전을 지켜본 시민들은 패배의 아쉬움보다 연일 이어진 '미국발 승전보' 덕분에 오랜만에 살 맛이 났다며 준우승에 그친 선수들을 격려했다.

24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동구 전남대 병원 환자 대기실.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저리거 1번 타자 이치로가 타석에 들어서자 TV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치로는 안돼", "봉중근이 일본은 꽉 잡지"라며 하나가 되어 승리를 염원했다.

낮 12시 광주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설치된 6개의 TV 주변마다 탄식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4회 말 1대0으로 일본이 앞선 가운데 2사1루 상황에서 김태균이 친 좌중간 깊숙한 타구가 상대 좌익수에게 잡힐 때 시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5회 말 선두타자 추신수가 경기장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포'로 동점을 만들었을 땐 깡총 깡총 뛰며 함성을 질렀다.

9회초 광산구 신창동 진흥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 진흥고 출신 임창용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들어서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에 지고 있는 상황보다는 '국가대표 학교선배'가 등장하는 게 더 신난다는 표정이었다. 임창용이 10회 초 2사 2·3루에서 이치로에게 뼈아픈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내줘 결국 3대5로 일본에 패했을 때엔 아쉬운 탄성을 질렀다.

홍정주(18·3년)군은 "지난 대회엔 4강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준우승, 다음 대회엔 우승할 것으로 믿는다"며 태극전사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부경찰서장에 양근원씨

양근원(46) 전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이 24일 광주남부경찰서장에 취임했다.

전북 남원출신인 양 서장은 1986년 경찰대(2기)를 졸업한 뒤 인천경찰청 부평서 형사과장, 경찰대학 교수부 경찰학과, 경찰청 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을 두루 거친 사이버범죄 수사의 베테랑이다. /김형호기자 khh@

'응큼男' 여자 샤워실 침입 강제추행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스포츠센터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진 김모(28)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 스포츠센터 1층 여자 샤워실에서 홀로 몸을 씻고 있던 A(여·24)씨의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일을 보러 가던 중 1층 환풍기에서 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 봤는데, 경찰에서 "A씨가 혼자 샤워하는 것을 보고 순간 마음이 동했다"고 진술.

○…김씨는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스포츠센터 여자 트레이너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해경서장·수감자 생면부지 '편지 인연'

선박 면허 도움 요청 문제집 등 보내 격려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생면부지의 교도소 수감자와 따뜻한 '편지 인연'을 맺어 화제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박성국 여수해경서장은 이달 초 광주교도소 재소자 조모씨로부터 선박면허 취득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격려의 답장을 보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씨는 편지에서 "바다에서 태어났으니 바다와 함께 남은 삶을 살고 픈 마음에 도움을 청한다"며 선박면허 취득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했다.

조씨는 또 "전과자 인생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며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씨의 절박한 사연은 박 서장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박 서장은 편지를 읽은 뒤 조씨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박면허 취득 관련 문제집과 시험절차 및 일정을 동봉해 답장을 보냈다.

박 서장은 편지에서 "나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며 "출소 후 선박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에 조씨는 박 서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보내주신 서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어촌계장 어업보조금 8천만원 착복

공무원 일지 허위 작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어업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챙긴 고흥군 모 어촌계장 박모(46)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업육성사업 지원금 4억6천만원을 받아낸 뒤 부실자재와 장비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8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또 담당공무원 이모(31)씨가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비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귀가 여성 노린 2인조 강도

신용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24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H아파트 5층 김모(여·35)씨의 집에 20~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침입, 현금 23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범인은 김씨가 잠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장 뒤따라가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뒤 강도행각을 벌였다. /김형호기자 khh@